

美學의 이해를 위한 독서

순수예술에 대한 철학적 반성

金文煥

서울대 교수 · 미학



金文煥교수

어떤 책을 읽을까

미학이라는 학명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18세기 독일철학자 알렉산더 바움가르텐을 참고로 한다면, 이 학문은 논리학과 대조를 이루면서 '감성적 인식의 학문'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를 비롯한 이른바 근대적 체계에서 이해되는 순수예술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다. 나아가 그런 활동들의 목표가 '감성적 인식의 완전성'이라고 설정된 '미'인 까닭에 미학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미학은 처음부터 이성, 특히 도구적 이성에 대한 균형 내지 견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그러한 균형 내지 견제가 갖는 초월적 성격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발견되는 조화, 균형, 대칭 등의 원리를 모방함으로써 독특한 쾌를 산출해낸다는 방식으로 모색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칫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성향을 띠게도 된다. 예술을 절대정신의 감성적 현현이라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理想化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는다. 조화가 깨어진 세계 속에서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어냄으로써 그것은 현실에 대해 이상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는 반면, 현실과 무관한 것으로 읽혀질 수도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에 예술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노력이 이론적 차원에서도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 현실이 특히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민족이나 계급이나 하는 집단을 중시하는 정치사상에 의해 지배당하면서 모처럼 확보된 예술과 미학의 자율적 성격이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전후의 미학은 '예술의 상대적 자율성'을 규명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미학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것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이 방면의 정평있는 외국문헌으로는 타타르키비치, 보상케, 비어즐리 등이 쓴 미학사문헌들이 있다. 그중 비어즐리의 「미학사」가 여러 의미에서 표준적이다(이론과실천사). 보상케의 「미학사」(문운당)는 박의현·백기수 공역으로 그 절반 정도만이 번역되어 있어 완역이 아쉬우나, 두사람 모두 고인이 된 까닭에 완역을 갖자면 후학들에게 기대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타타르키비치의 「미학사」(3권)는 정보량으로 보아 가장 믿음직하나 그만큼 방대하여, 개인보다는 예컨대 한국미학회 등의 단체가 책임을 맡게 되면 더 나을 듯하다. 그의 또 다른 저술인 「여섯 이념들의 역사」는 「예술: 개념의 역사」 '예술:분류의 역사' '예술:미술과 시의 관계사' '미:개념의 역사' '미:범주의 역사' '미: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간의 논쟁' '형식:한 술어와 다섯 개념들' '창조성:개념의 역사' '미메시스:예술과 현실의 관계사' '미메시스:예술과 자연 및 진리의 관계사' '미적 경험:개념의 역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예술:개념의 역사」는 열화당에 의해 단행본으로 발행되어 있고, '예술:분류의 역사'는 김문환의 미학입문서인 「예술을 위한 변명」(전예원)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여섯 이념들의 역사」는 그 각각을 따로 읽으면 눈에 띄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반복이 눈에 띄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에 의한 편역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른바 通史 못지 않게 각 시대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도 필요한데, 근대부분에 대한 단행본으로는 김문환의 「근대미학연구」(1)이 서울대학교출판부에 의해 발행된 정도이다. 현대미학에 대한 개괄적인 입문서적으로는 김문환의 편저인 「현대미학의 방향」(열화당)이 있고, 오병남이 황유경과 함께 번역한 조지 디키의 「미학입문」(서광사), 오병남이 번역한 같은 저자의 「현대미학」(서광사)도 미학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현대미학, 특히 영미방면의 연구성과를 요약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스톨니츠가 편집한 「미학」(울유문고, 김문환 역)은 미학의 중요문제들을 역사적 발전과정을 감안하여 추리면서 대

표적인 필자들의 글을 요약하고 있어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간편한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20세기 초의 가장 뛰어난 미학자중 하나인 우티츠의 간략한 「미학사」도 문고판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전공자에 의한 번역으로 대체되었으면 싶다.

앞에서 언급한 책들 외에 쿤과 길버트가 공저한 「미학사」와 아울러 크로체의 「미학」 제2부도 번역됨직하다고 본다. 전자는 특히 18, 19세기 독일미학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것들에 비해 충실한 편인데, 필자에 의해 그 부분이 번역중에 있다. 아직 충분하다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만 현대미학에 속하는 전공서적들이 더러 눈에 띄는 반면, 고대·중세 또는 근세초기 내지 19세기에 이르기까지의 미학적 사고에 대한 전문서적들이 너무나도 빈약하다. 이 시기까지의 미학적 이론들은 현대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도 흥미롭거나, 동양문화와도 많은 점에서 비교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자신의 문화유산을 객관화하는 데에도 여간 긴요하지 않다.

미학의 본성과 영역

미학사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특히 현대미학의 영역이나 기본개념들에 대한 이해도 자못 절실하다. 예컨대 「대영백과사전」(1984년도판)은 미학항목을 이렇게 시작한다.

“미학은 미와 취미의 철학적 연구로서 막연하게 정의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주제(subject matter)를 좀더 자세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다. 참으로, 자기정의가 현대미학의 주요과제가 되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흥미롭고도 어리둥절한 경험영역을 알게 된다. 미·추·숭고·우아의 영역, 취미·비평, 그리고 순수예술의 영역, 관조·감관적 향유 그리고 매력의 영역. 이 모든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비슷한 원리들이 작용하고 비슷한 관심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러한 인상에서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미와 취미와 같은 이념들이 오로지 주변적인 철학적 관심을 가진 것으로서 깨끗이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그와는 달리 만일 우리의 인상이 바로고 철학이 그것을 확인해준다면, 우리는 철학적 미학을 위한 기초를 발견한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취미'라는 용어는 아름다움을 식

미학은 논리학과 대조를 이루면서,

'감성적 인식의 학문'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를 비롯한

이른바 근대적 체계에서

이해되는 순수예술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른바 철학적 미학 뿐만 아니라

예술심리학, 예술사회학 등을

필두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미학의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다.

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대철학은 물론 미학의 실질적인 창시자라고도 일컬어지는 독일의 칸트 역시 바움가르텐의 조어보다는 '취미판단'이라는 술어를 보다 그럴 듯하게 여긴 적이 있다. 그러나 바움가르텐 이후 근 백년쯤 뒤에는 '미학'이라는 용어가 독일 뿐 아니라, 영·불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도 두루 통용되기에 이른다. 이런 과정에서 미학은 미 또는 추라는 말로 표현되는 자연대상들에 대한 반응들도 다루지만, 특히 헤겔 이후 예술들의 본성과 가치를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로 여겨진다. 그러나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미학은 예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포괄하게 된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이른바 철학적 미학 뿐만 아니라, 예술심리학과 예술사회학을 필두로 다양다기한 연구들이 미학의 이름아래 진행될 뿐 아니라, 개별적인 예술활동에 관한 학문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철학적 미학의 방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는 미학의 본성과 영역에 대한 설명을 찾게 되는데, 특히 영미에서 통용되는 미학에서는 미학에 대한 세가지 접근방법을 1) 미적 개념들의 연구 또는 보다 특별하게 '비평언어'의 분석, 2) 미적 경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특정한 심적 상태들-반응들, 태도들, 정서들의 철학적 연구, 3) 미적 대상의 철학적 연구로 나누고 있다. 특히 첫

째는 분석철학의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강화된 접근방법인데, 철학이 특정대상을 직접 다루어나가는 것에서 한계를 갖게 되면서 특정대상을 다루는 개별학문 또는 이론의 주요개념이나 논리를 세련시키는 일에 주력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게, 미학은 예술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예술을 다루는 이론에서 동원되는 개념이나 논리를 세련시켜나가는 일에 중사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된다. 여기에서 특히 예술비평이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미학은 비평의 비평, 즉 메타크리티

결되어 있다면 미적 대상의 철학적 연구는 다분히 객관주의적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는 미학의 여러 문제들이란 결국 세계가 특별한 대상계층을 포괄하고 있어 이에 대해 우리가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미적 술어들로써 기술한다는 견해를 반영한다. 이런 맥락에서 예술작품들이 주목되고, 이에 따라 예술이 정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는 자연히 예술작품 이외의 대상들은 예술로서 보여질 수 있을 때에만 포함될 수 있으므로, 미학과 예술철학의 구별은 무의미해진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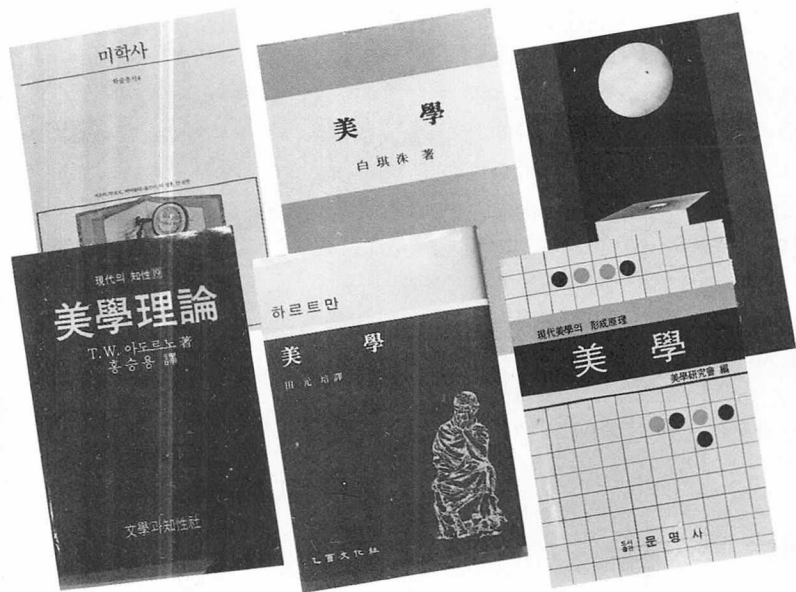
토론하는데 사용되는 언어·기호들과 상징들, 개념들, 추리들을 다루는 논리, 의미론, 그리고 기호학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현상학과 존재론이 있는데, 이는 예술작품 또는 그밖의 미적 대상의 본성을 존재와 인간지식의 상호관계 속에서 시험한다.

현대미학은 이처럼 이전의 학문들과 그밖의 다른 원천으로부터 예술들과 문명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변화하는 역할들을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 그것은 여러가지 심상들의 상징적 의미와 정서적 효과들을 포함하여 예술적 창조와 감상의 과정들에 조명하기 위해(심리분석과 심층심리학을 포함하여) 심리학을 이용하는가 하면, 사회과학들에 기대하기도 한다. 예컨대 예술들이 서로 다른 종족들과 시대들의 문화적 패턴들에 짜여져 들어갔던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위해 인류학에 관심을 보인다. 미학은 또한 다양한 예술들의 역사와 일반 문화사에 끌리기도 하는데, 연대기적 질서보다는 이론적 질서 속에서 그 재료들과 결론들을 조직해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술사의 일반이론들은 미학과 역사학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고 해도 좋다. 이밖에 미적 가치이론 또는 가치론이라는 주제를 위한 제3의 주요한 분류가 인지되어야 한다. 이는 예술작품과 관찰자를 거의 동등한 정도로 주목할 것을 요청하면서, 1) 여러가지 예술의 유형들과 양식들,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인간생활과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한 지식 2) 여러가지 조건들 아래 예술이 다양한 인간 유형들에게 미치게 되는 효과의 종류들에 대한 지식, 그리고 3) 도덕적 및 실천적 내지 미적인 것을 포함해서 가치기준들과 여러가지 이상적인 상태들에 대해 그러한 효과들이 맺는 관계들에 대한 지식을 포괄한다. 이런 맥락에서도 미학은 예술비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특수한 예술가들이나 예술작품들의 장점들보다는 그 분야의 일반적인 원리들과 문제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평가와 비평에서 사용되는 기준들을 시험한다. 경험적인 주제로서, 미학은 우선 기술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즉, 예술과 이와 관계된 인간활동들에 관한 사실들의 발견과 일반화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가치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으나, 예술의 실제적인 본성, 기능들 그리고 효과들의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한 탐색을 통해 보다 간접적으로 이에 접근한다. 이러한 이해는 평가가 단순한 교조적 확언이나 개인적인 취미의 표현 이상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려됨직하다. 현대미학은 이처럼 보편적인 가치법칙들을 증명하노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평가가 보다 풍부한 정보에 입각하고 지적인 것이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당한 지식과 방법들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현대미학은 또한 미의 주제를 망각하지 않으나, 전통적인 미학보다는 '미' '숭고' '추'

등을 정의하는 과제에 보다 덜 매달리고 있다. 그 대신에, 그것은 관찰자와 작품 또는 그를 자극하는 다른 대상 양자에서 보이는, 미적 경험에 포함된 수많은 특수한 과정들과 형태화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아름다움'과 같은 술어들의 정의는 부분적으로 의미론적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를 위한 한가지 좋은 대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주요과제는 그러한 술어들이 적용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언어적으로 기술하는 데 보다 적합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다. 즉, 미의 개념은 조사를 필요로 하는 미적 경험과 예술의 많은 국면들 중 오직 하나로서, 현대미학에서는 전통미학에 비해 보다 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미와는 다른 성질들을 목표로 하는 현대예술가들의 경향과 아울러 예술의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미를 보다 적게 강조하는 비평가들의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특히 시대적 변천과 아울러 마르크시즘의 도전이 적지 않게 작용한다. 지면 관계로 길게 쓰지 못하나, 마르크시즘은 특히 예술의 기원과 발전, 예술에서의 진보, 예술의 목표와 기능, 예술과 그밖의 이데올로기형식들에 관한 독특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예술의 본성에 대해서도 예술의 계급적 성격, 당성, 민족적 정체성, 예술의 미적 국면을 중심으로 서방세계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이론과도 다른 면모를 지닌 미학을 개척하고 있다. 루카치를 중심으로 몇몇 이론들이 국내에도 소개되어 있으나, 정작 그 뿌리가 되는 혁명적 민주주의자들,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레닌의 부분이나 이른바 1953년 이후 해빙기에 이루어진 미학논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정보가 어렵다. 학문에서의 편식 현상을 모면하기 위해서도 이의 정상적인 수용을 위한 노력이 아쉽다 하겠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이론들이 미학의 현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설명되어야 하겠으나, 이미 약속한 지면이 다했으므로 생략할 수밖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추천도서목록도 생략할 수밖에 없는데, 서광사와 이론과 실천사, 열화당, 서울대 출판부 등의 도서들이 대체로 전문인력에 의한 것이라 비교적 안심이 된다. 앞으로도 미학을 전공하지 않는 인력에 의한 해당분야에 대한 용회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저작으로는 개론적인 성격을 가진 단행본들 중 백기수, 조요한, 박이문, 임영방 등의 것들이 참고할 만하다. 국내저술과 함께 해외이론의 소개가 좀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사회전반, 특히 출판관계가 이 방면에 비상한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해외이론의 경우 주요단행본만큼이나 논문선집들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국내 전문학자에 의한 편집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아울러 영미에 치우친 경향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출간된 미학관계 책들

시즘의 성격마저 띠게 된다. 예컨대 보다 근래에 이르러, 철학자들은 현대문학이론의 개념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말하자면, 그것은 재현, 표현, 형식, 양식 그리고 감상성 (sentimentality) 같은 술어들 또는 기술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어떻게 정당화되며, 그것들 속에서 표현되는 인간적 경험들에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심적 태도의 철학적 연구에서는 특히 '미적 무관심성'이 주목된다. 감각적 쾌적이나 도덕적 선(또는 도구적 선)과 결부되어 있는 쾌와 구별되는 쾌로서의 미가 갖는 특성을 구분해내기 위해 구사된 이 개념은 18세기 미학을 지배했으나, 오늘날에도 헤겔, 현상학자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등에 의존한 철학적 심리학에 힘입어 비록 다른 방식을 통해서나마 여전히 세력을 가지고 있다. 경험적 심리학과도 구별되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현상학과 개념분석에서 보이듯이, 하나의 선험적인 또는 개념적인 조사로서, 그 밑바닥에 놓인 관심은 설명(explain)보다는 식별(identify)이다. 즉, 우리가 사물을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평가해야 하는가가 과학의 목적인 설명에 선행하거나 그것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연구가 다분히 주관주의적 경향을 띠면서 미적 창조와 수용과 더 많이 연

려나 미학은 예술철학보다 상위에 속하는 개념임을 주장하고, 따라서 미적 대상을 예술작품에 고정시키거나 이에 따라 미적 경험의 영역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를 경시하는 경향에 대한 반발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상의 세가지 접근방식들은 그러나 결국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성격이 못된다. 어찌보면 단지 강조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미학은 예술들과 이와 관련된 행동과 경험의 유형들에 대한 연구로서, 전통적으로 철학의 한 가지로 여겨지면서 예술과 자연에서 천명되는 미와 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연관된다고 여겨졌는데, 아직도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대로, 20세기에서는 이를 독립된 교과과 다루는 경향이 발전되었던바, 이때 예술현상과 그것이 인간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조사하는 것이 주된 관심으로 부각된다. 그런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1) 모든 매체들 속에서 이루어진 예술작품들과 2) 예술작품들을 향해 조준된 인간의 행동과 경험이 된다. 예술작품들의 분석, 기술, 비교를 위한 이론들에는 1) 예술들의 체계적 분류(예술들과 그 연관들) 2) 미적 형태론(다양한 예술들에서 이루어진 형식과 양식의 기술적 연구) 3) 예술사의 이론들이 있다. 예술들과 관계된 인간행동과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 중에는 우선 미적 심리학과 예술의 사회학, 그리고 예술을